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 주일오전설교

### 나를 본받으라

[빌 3: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스 코페이테[주목하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두 가지 점을 포함할 것이다. 첫째는 이신칭의(以信稱義)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확신이며, 둘째는 완전 성화(聖化)를 위한 정직한 달음질이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고 우리에게 생명적 진리이다. 또 완전 성화를 위한 정직한 달음질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합당할 일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요 의로운 삶이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義)만 확신하는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난 중에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힘써 달리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믿음과 그의 달음질을 본받으라고 담대히 권면한다.

그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말한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들이 있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완전 성화를 위해 힘써 달려가는 진실한 성도들이 있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는 성경 교훈대로 믿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주목해야 한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이다.

[18절] [이러]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행함이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침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무효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 또 그러면서 저 행위구원론자들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을 핍박하였다. 저런 거짓 교사들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고 그의 원수들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미 갈라디아서에서 자세히 언급하며 논박하였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저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 대해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진도 사역의 생애는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고, 또 한 바른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때때로 싸워야 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현실이었고 또한 2천년 교회의 역사이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배교자들과 또 그들과 타협하는 불신실한 종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들일 것이다. 오늘날도 진실한 종들과 성도들은 저 배교자들과 타협자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린다.

[19절] 저희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한다.

첫째로,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19:20은 하나님의 마지막 대 심판 전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지옥 불못에 던지울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결말은 지옥 불못이다.

둘째로, 그들의 신(神)은 그들의 배다. 이것은 그들이 육체적 욕심을 최고 가치로 알고 살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먹는 것이 최고 가치이며 그 외에도 그들은 물질욕, 정욕, 명예욕, 권세욕 등에 사로잡혀 그것들에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욕심을 섬기는 자들이다.

셋째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 말쑥은 그들의 현재의 영광이 결국 부끄러움이 될 것

이라는 뜻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자들에게 참된 영광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들의 영광은 실상 그들의 수치이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 날 그들에게는 큰 고통과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다.

넷째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의 일’이란 썩어질 것, 허무한 것 그리고 죄악된 것을 의미한다(요일 2:16).

**[20절]** [이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있음이내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본문도 17절에 이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말한다. ‘시민권’이라는 단어는 ‘시민권’ 혹은 ‘나라’라는 뜻이다. 거짓 교사들과 달리,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며 천국의 시민권자이다. 이것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실인가? 천국은 복된 세계이다(히 11:16; 계 21:1-4).

우리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천국에 계신 주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계 22:20). 우리는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구원은 하나이지만, 세 단계가 있다. 중생(重生)과 칭의(稱義)는 과거의 단계이고, 성화(聖化)는 현재의 단계이고, 영화(榮化)는 미래의 단계이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고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지만,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실제로 죄성과 연약성과 죽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몸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할 수 있는 역사로(원문, KJV, NASB, NIV)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신적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능하신 하나님이다. 주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의 신적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 가질 부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같이 영광스러울 것이며 약하지 않고 썩지 않는 강한 몸일 것이다(고전 15:42-44). 여기에 성도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있다. 부활과 천국과 영생은 성도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이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경건한 종들을 본받고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소원하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고 바르게 사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했다. 우리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복음 신앙과 완전 성화에 대한 정직한 열심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딤후 4:12 딤후 2:7).

둘째로, 우리는 교회 안의 배교자들과 타협자들을 분별하고 그들을 배격해야 한다. 그들은 결국 육신적 쾌락과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오늘날 그런 배교자들과 타협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이다. 우리는 그들을 분별하고 배격해야 한다.

셋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확신하며 소망하고 즐거워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

### **주일오후설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교훈

[계 2:18-19]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행위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것보다 많도다.

주님의 눈이 불꽃같다고 한 것은 그의 통찰력의 날카로움을 나타내시며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한 것은 그의 심판의 엄위함을 나타내신다고 본다. 주께서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에게 이런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주께서 그 목사의 문제점을 통찰하시고 그가 포용한 악에 대해 심판하실 것을 암시한다. 오늘날도 주께서는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행위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가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하셨다. 그 목사는 주님께 칭찬들을 일을 많이 하였다. 그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주를 사랑했고 믿었고 섬겼고 인내했다. 이것들은 다 좋은 점들이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주를 참으로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하며 또 환난 중에도 오래 참는 자 되기를 원한다. 또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들보다 많았다. 그는 참으로 진실한 목사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꾸준히 주를 믿고 섬겼으며 점점 더 열심히 주를 믿고 섬겼다.

**[20-21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네 아내)(전통사본)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진실히 주를 믿고 섬기는 목사에게도 문제점이 있었다. 그의 문제점은 버가모 교회 목사의 문제점과 같이 잘못된 지를 포용하는 데 있었다. 그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그의 아내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의 아내는 선지자로 자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옛날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처럼 우상숭배자이었다. 그 여자는 주의 종들을 가르쳐 피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우상숭배에 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는 이 죄악을 용납하고 있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도 포용주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이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들과 천주교회를 포용하거나 심지어 동성애 같은 악을 포용하고 있다. 주께서는 확실히 그들에 대해서도 책망하실 것이다.

주께서는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주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믿을 기회를 주신다. 그들은 그 기회에 지체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말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그 여자는 그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구원받지 못한 자이었을 것이다. 교회 속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회개치 않는 죄인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자들을 보면 낙심할 것이 아니고, 힘써 권면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여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2-23절] 불지어다, 내가 그그 여자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주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목사 사모에게 벌을 선언하셨다. 첫 번째는 그를 침상에 던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를 병상에 눕게 하심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이는 것이었다. 이것은 주님의 공의의 징벌이었다. 이로써 모든 교회는 주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죄는 은밀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주께서는 사람의 그 은밀한 마음과 뜻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징벌하신다. 주 앞에는 비밀 같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는 오늘날에도 공의로운 징벌을 내리실 것이다.

[24-25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감사하게도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여자의 교훈을 받지 않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 해이해지고 넓어진 교회들 속에도 순진한 교인들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주께서는 두아디라에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셨다. 그는 그들에게 단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그의 재림의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다. 오늘날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안에 사탄의 은밀한 활동이 많이 있다고 보인다.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하고 비성경적 에큐메니칼 운동 즉 교회연합운동이 활발하고 은사주의의 혼란과 교회 음악의 타락 등이 그 증거들이다. 현 시대는 배교와 타협과 혼란의 시대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주께서 남겨두신 신실한 교회들이 어디인가에 있고 신실한 목사들과 성도들이 어디인가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끝까지 속죄신앙과 개혁신앙을 지키고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하기를 원한다.

[26-29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일”이라는 말씀은 주께서 명하신 주의 일들을 가리킬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심판 권세이다. 주께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시며(계 12:5) 이 권세를 성도들에게도 나누어 주실 것이다(마 19:28; 고전 6:2). 또 주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 새벽별은 주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키는 것 같다. 그는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셨다(계 22:16).

본문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두아디라 교회 목사는 **니중 행위가 처음것보다 많았다.** 우리의 선한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처음 믿었을 때보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자라고 풍성해져야 한다.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과 선행이 지리키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의 목사는 잘못된 교훈을 따르

는 아내를 용납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잘못이 있을 때 그를 책망하고 고치게 해야 한다. 우리는 특히 우상숭배와 음행의 악을 멀리해야 한다. 악의 포용은 교회를 부패시킨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우리는 가족들 중에 있는 악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 교회 연합운동, 은사주의, 여자 목사, CCM, 열린예배, 낙태, 동성애까지 용납하는 풍조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교리적, 윤리적 오류들을 분별하고 배격하고 성경에 밝히 계시되고 증거된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굳게 믿고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 수요일 설교 | 이스라엘의 회복

[습 3:9-10] [이제 그때에 내가 열방(열민)(백성들의) 입술을 깨끗케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할 것임이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나의 예배자들)(NASB, NIV) 곧 내가 흠은 자의 딸이 구수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구원하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증거하였다고 보인다.

첫째로, 그들은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의 입술을 깨끗케 하셔서 그들로 다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순수한 신앙고백과 순수한 찬송과 순수한 기도를 가리킬 것이다. 그것은 참된 종교의 회복과 부흥이다.

둘째로, 그들은 일심(一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일심으로'라는 원어(שֶׁקֶט אֶכָּדֵם)는 '한 어깨로'라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합심함을 나타낸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서로 분쟁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빌 1:27-28; 2:2).

셋째로, 그들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그에게 예물을 드릴 것이다(시 96:8; 잠 3:9-10).

[11-13절]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의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아니)(겸손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리라)(KJV), 피난처로 삼으리라(NASB).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께흠한(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자들을 두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질 것이다. 첫째로, 그들은 교만치 않고 겸손할 것이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것이다. 전에는 그들이 우상을 의지했고 돈이나 세상 권세 같은 것을 의지했을 것이나 이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를 피난처로 삼을 것이다. 셋째로, 그들은 악과 거짓을 행치 않을 것이다. 넷째로, 그들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14-15절]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선지자 스바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심으로 기뻐하며 노래하라고 말한다. 그들이 기뻐 노래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형벌을 없애주셨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앗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의 이웃 나라들이었다. 그는 인류의 원수인 죄와 죽음과 사탄과 악령들도 쫓아내실 것이다. 셋째로, 이스라엘 왕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므로 그들이 다시는 재앙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16-17절]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구원하시는) 용사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노래하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섬겨야 한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구원 즉 세계복음화를 포함할 것이다.

둘째로, 구원받은 우리는 새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는 교만치 말고 겸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악과 거짓을 버리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경건하고 겸손하고 선하고 진실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제하셨고 우리의 원수들, 죄와 미귀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 노래하신다. 그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